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7호 [루게 제23149호] 주체99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종수동지,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리철만동지,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지배인 최영덕동지를 비롯한 도와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에 모시고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영광을 지닌 간석지건설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서해의 날바다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대계도간석지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며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대회에 드리는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당의 호소를 피뚫는 심장에 받아안은 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대기념비적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산을 허물어 바다를 메우며 염주군 다사도로부터 대다사도, 가차도, 대계도를 거쳐 철산반도에 이르는 수십리 방조제를 쌓고 내부방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웅군 한개 군의 면적과 맞먹는 부침땅을 얻어내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고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으며 광활한 대계도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의 완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계도간석지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바다를 가로지르며 성벽마당 뻗어간 거창한 제방들과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일망무제한

간석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간석지개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날바다를 헤가르며 련련히 뻗어간 수십리의 제방들로 둘러싸인 대평야를 방불케 하는 개간된 간석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서해감문에 못지 않는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낼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계도간석지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자연개조사업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대종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 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만만시련을 이겨내야 했던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완강한 투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서해감문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끝냈다고 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이 땅에 기어오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결연불발의 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영웅적조선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대한 일대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마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이야말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며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난을 헤치며 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의 공적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실현한다는것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변함없이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할뿐만 아니라 수령님의 구상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진히 제의를 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인 간석지건설자들이 수수만년 행성의 인력으로 쉼물과 밀물만이 엇바뀌던 우리 나라 서해안지대를 로동당시대 인간들의 의지와 리상대로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옥도로 전면시킨 이 위대한 현실은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한 일대 사변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규모자연개조사업인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것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지니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한 평북도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평북땅에 날에 날마다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도당위원회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전당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개간된 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농사형편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끝간데없이 아득히 펼쳐진 대지에 푸른 주단을 퍼놓듯 한

눈밭들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대농장이 솟아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간석지에서는 해마다 알곡수확고를 높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간석지농사를 잘하기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간석지건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간석지건설을 더욱 튼튼하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경지면적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것은 간석지개간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것이라고 지적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확산간석지 2계단 공사와 미진된 간석지내부망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계도간석지구조물관리소에서는 해안방조제와 배수구조물들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일피해로부터 방조제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간석지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선군시대에 일떠세우는 건설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조국의 만년대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대계도

간석지건설을 완공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새땅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밑에 전투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설에 필요한 료건기재문제를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간석지건설자들이 건설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 비결의 하나는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을 적용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새로운 건설공법을 적극 창안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간석지건설은 어렵고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인것만큼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에 필요한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영원한 재부인 땅을 넓혀가는것은 후손만대의 행복과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간석지건설자들이 이 영예롭고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다시한번 펼쳐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기업소의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월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오시여 자기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간석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압록강수산업소에 새로 건설된 축양장과 굴양식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압록강수산업소에 새로 건설된 축양장과 굴양식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종수동지, 제1부부장인 리재일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압록강수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편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된 축양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압록강수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고급수산물을 인민들에게 많이 공급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축양장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양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물고기보관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련이 늘어선 곳마다에서 육실거리는 보가지, 광어를 비롯한 살찐 물고기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축양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맛좋은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많이 기르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수산업소에서와 같이 물고기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잡은 물고기를 축양장에서 얼마간씩 길러 공급하면 인민들이 언제나 펄펄 뛰는



생선을 먹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축양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양장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훌륭히 꾸려진데 맞게 물고기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자면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축양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기때문에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단위들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생산을 적극 늘임으로써 인민

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새로 꾸려진 굴양식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가슴깊

이 새긴 압록강수산업소의 로동계급은 생산능력이 큰 현대적인 굴양식장을 새로 꾸려놓고 그 관리운영을 짜고들으로써 굴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득히 펼쳐진 양식장을 바라보시면서 수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굴양식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굴은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므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자연덕이를 리용하여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굴양식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굴양식에서도 과학화, 현대화를 결정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굴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사양관리를 부단히 개선하는 동시에 양식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산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보다 풍족한 식생활을 마련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압록강수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서해의 외진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수산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